

광주일보 제8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 박찬일 셰프 '추억의 맛, 한국의 맛'

“선조들 역사 고비마다 음식의 지혜로 헤쳐 나왔죠”



박찬일 셰프



박찬일 셰프가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호남 쇠고기, 따뜻한 곳에 자라 육질 떨어지자 육회 만들어 시장 선점 뽕감 풍부한 한국 수육·국밥·설렁탕 발달...산업 시대 가공식품 성장

“우리 음식에는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으로부터 삶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지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담긴 추억의 음식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쓰는 요리사’ 박찬일 셰프가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제8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한국 곳곳에 숨은 ‘노포’(오래된 점포)를 찾아 추억을 기록해 온 그는 이날도 ‘추억의 맛, 한국의 맛’을 주제로 강연을 풀어내었다. 그는 50년대 이후 우리 음식 문화를 되짚고, 음식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돌아봤다.

박 셰프는 호남 지역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뗐다. 호남 음식으로 전국에서 인기를 끈 ‘육사시미’가 첫 주자였다. 박 셰프는 “예전에 따뜻한 호남 지방에서 자란 소는 고기 질이 좋지 않아 인기가 없었는데, 육사시미의 인기로 호남이 쇠고기 시장을 꼭 잡게 됐다”고 말했다.

박 셰프는 이어 광주에서 40여년 동안 운영해 온 한식당을 들었던 경험을 들려줬다.

“20대부터 이 일을 해 왔다는 주인 아주머니는 스스로를 ‘찬모’라고 소개했어.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많지요. 하얀 조리복을 입고 TV에 나오는 사람만 ‘셰프’가 아닙니다. 한 음식을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분들 모두가 ‘셰프’죠.”

한국의 수제 문화도 짚었다. 우리나라는 한·중·

일 중 유일하게 손가락을 주 식기로, 젓가락을 부(副) 식기로 활용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또 한 때 여자는 젓가락을 쓰지 못하고, 손가락도 불편한 자세로 써야 했던 것 등 가장장적 문화가 묻어 있었던 점도 짚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중에서 유일하게 금속 젓가락을 쓰는 나라이기도 해요. 추측이지만, 늦쇠 젓가락을 쓰던 양반들을 따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해요. 쇠젓가락에는 ‘우리도 고귀한 존재’라는 자각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박 셰프는 우리나라의 삶의 방식과 문화, 환경 등으로부터 독특한 식문화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고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예시였다.

뽕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수육이나 국밥, 설렁탕을 끓여 먹으면, 나무가 부족했던 중국은 잘게 썰어 쉐 불로 빠르게 볶아 연료 소모를 최소화했다.

박 셰프는 일제강점기 일본 ‘아지노모도’(일본

식 조미료)의 수입, 6·25 전후 미군의 밀가루 배급 등으로도 식문화가 변했다고 짚었다. 또 식재료 공급처가 텃밭에서 공장으로 옮겨가고, 중국 배추 종자가 우리나라 배추 종자를 밀어내 옛 맛과 큰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만드는 법까지 달라진 경우도 있어요. 가령 전통 불고기 ‘너비아니’는 원래 값비싼 궁중 요리였지만, 냉동 고기를 얇게 저밀 수 있는 전동 기계가 개발되자 값싼 앞다리 부위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지요. 귀한 동치미도 예기가 개발돼 사카린, 사이타, 식초, 설탕을 넣어 간단히 만들게 됐습니다.”

박 셰프는 “음식 역사를 돌아보면, 격동하는 세계에서 치이고 밝히면서도 삶을 이어갔던 우리 역사가 보인다”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옛 조상들처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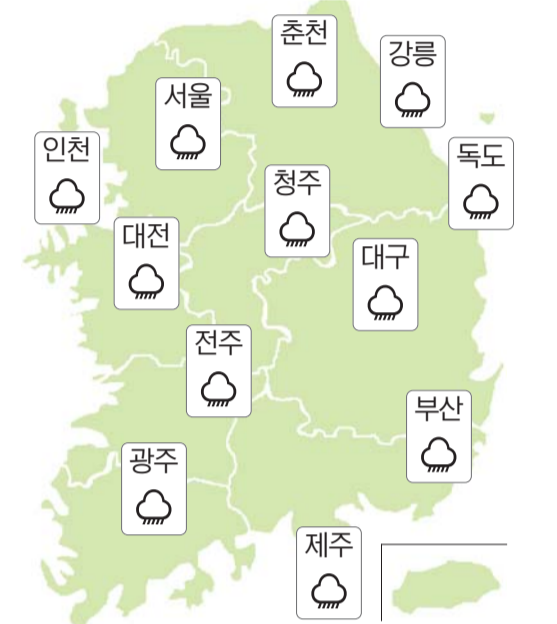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1	달뜨기	11:21
해지기	17:24	달지기	21:14

만추 속 많은 비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여 천동번개를 동반한 최대 80mm 비 오겠다.

광주	흐리고비	19/20	보성	흐리고비	15/19
목포	흐리고비	18/19	순천	흐리고비	16/20
여수	흐리고비	19/20	영광	흐리고비	18/19
나주	흐리고비	17/19	진도	흐리고비	18/20
완도	흐리고비	17/21	전주	흐리고비	19/21
구례	흐리고비	15/20	군산	흐리고비	18/20
강진	흐리고비	17/20	남원	흐리고비	17/20
해남	흐리고비	18/21	흑산도	흐리고비	17/20
장성	흐리고비	17/19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5~3.0	1.0~2.5
	면바다(북)	2.0~4.0	2.0~3.0
남해서부	앞바다	1.0~2.0	1.0~2.0
	면바다(서)	2.0~4.0	2.0~4.0
	면바다(동)	2.0~4.0	2.0~4.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44	04:35
	22:33	17:27
여수	05:10	12:02
	18:09	23:57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좋음

◇주간 날씨

20(금)	21(토)	22(일)
☁	☁	☁
8/10	3/16	9/12
23(월)	24(화)	25(수)
☀	☀	☀
4/11	4/11	3/11

2020 노인의료나눔서비스 대상 세계로병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세계로병원(병원장 정재훈·사진)이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노인의료나눔서비스 대상에서 의료안내 서비스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세계로병원은 풍부한 시술경험과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정확하고 정밀한 진료를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로 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 연탄나누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기부활동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재훈 세계로병원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세계 기록 인증기관인 미국 월드레코드 아카데미(WRA)와 EU(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OWR)에서 최소 침습 무료 인공관절 수술 세계 최고 기록을 인증받기도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이란 국적 박사과정생 SCI급 논문 발표·학회 수상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이 주요 학회 우수포스터 발표상은 물론 잇단 SCI급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전남대 생물과학·생명기술학과 로산자드하 아미르(Roshanzadeh Amir-이란, 박사과정·지도교수 김윤삼)은 지난 10월 국내 최대 세포생물학 분야 학회인 '2020년 국제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 학회 대학에서 1명을 선발하는 '삼성 글로벌 희망장학사업'에 선정돼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아미르씨는 지난 9월 공기 중 초미세입자로 인한 인간의 폐세포 손상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로 사람의 폐를 모사한 'lung-on-a-chip(펄온어칩)' 개념을 도입해 실험을 진행하고, 이 연구내용을 주요 학술지에 게재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MG광주새마을금고, 저소득 돌봄이웃에 식료품 세트



MG광주새마을금고(이사장 이일봉)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저소득 돌봄 이웃 100세대에 200만원 상당 식료품 세트를 기증했다. 후원원은 이일봉 이사장, 전계관 각하동지점장 등 4명의 기부로 마련됐다. <MG광주새마을금고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정재현(전 광주일보 논설실장)·임영숙씨 장남 영철군, 이명석·민순금씨 장녀 민아양=28일(토) 낮 12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스카라티움 강남점 2층 오텔홀 02-538-3300.
- ▲봉병래·김선례씨 장남 원영(황해사)군, 김선철·최진희씨 장녀 유리(임상병리사)양=29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서구 웨딩그룹타워스 3층 펠리체홀 062-364-1234.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을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도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 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인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이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레이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블로그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

- 5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